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 Center

03

2012 <http://www.ucac.or.kr>

OFFICE MUSICAL
**막돼먹은
영애씨** ON STAGE



매일저녁 **퇴사?** 매일아침 **입사!**

3.23^토-24^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3(토) 7시 30분 / 24(토) 3시 7시

주연 김현우, 서지미, 임기동, 최지현, 서영재, 최정은, 김민정, 박지현, 이다희, 김민정 / 특별출연 2명, 3명, 4명

문의 051-275-9623, 울산문화예술회관 www.ucac.or.kr (주) 울산문화예술회관, (주) 울산문화예술회관, (주) 울산문화예술회관



04



10



18

Arts Friend

1995년 10월 5일 울산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듬해인 1996년 1월부터 발행한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예"가 2012년 3월호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라는 제호로 다양한 공연·전시정보와 문화예술관련 유익한 볼거리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Arts Friend* - 2009년 관객 설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문예회원을 뜻하는 별칭

Arts Friend 2012.3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04 기획공연

막돼먹은 영애씨

선, 서경덕의 Talk Concert

스위트콘서트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08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4회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Ⅱ '브람스 교향곡 4번'

합창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새 봄맞이 합창소리'

교향악단 특별기획 가족음악회 '그림자로 보는 오페라 마술피리'

무용단 기획공연 '나는 무용수다'

청소년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청바지 음악회'

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사랑이 있는 풍경'

18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 도시 I 뉴저지 뉴아크

브람스의 사랑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에 나타난 3월 풍경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무대 뒤 이야기

28 Part.2 UCAC는 지금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NOTICE

31 Part.3 3월의 공연·전시

공연 가이드

전시 가이드

3월의 공연·전시 캘린더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3월호 | 통권 제152호

●등록번호 / 57-6310081-000001-06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김현옥,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Tel 052-275-9623~8 ●Homepage <http://www.ucac.or.kr>

●주소 / 680-715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기획공연 no.1

3. 23(금) 오후 7시 30분
3. 24(토) 오후 3시,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대리석 30,000원
팀장석 25,000원
과장석 20,000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티켓구입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OFFICE MUSICAL 막돼먹은 영애씨 ON STAGE



매일 저녁 퇴사? 매일 아침 입사!
100% 리얼 공감, 바로 당신의 이야기!

“

짜증나고 지치는 직장생활.
일상에 지치고 지쳐 월차라도 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직장인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만한 희소식이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매일 저녁 퇴사?
매일 아침 입사?”라는 메인 카피와 함께
일반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충을 작품의 중심으로 가지고 온
본격 오피스 뮤지컬이다.

오는 3월 23일·24일 울산문화예술회관 개막!

상사 대처법, 승진과 정리해고, 이직 등 샐러리맨의 리얼 오피스 라이프와 혼남 직장 동료와의 파란만장 로맨스, 예뻐서 대우받고, 아부해서 살아남는 회사 생활의 고충 등을 현실적으로 짚어내며 직장인들을 울고 웃게 만든 ‘영애씨’의 이야기를 라이브 무대에서 만나보자.

똥똥한 외모에 쥐꼬리만한 월급, 비호감 상사들의 짜질한 성희롱까지...

막돼먹은 세상에 맞서다 스스로 막돼먹어버린 여자 이영애!

연하의 꽃미남 등장! 나에게도 봄날이?!

칙칙하기만 하던 사무실에 혜성처럼 나타난 연하의 꽃미남 신입사원 원준! 일 잘하고 쿨한 영애는 서툰 원준의 뒤통다끼리를 담당하고 원준은 그런 영애를 동경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는 야근 도중 만취한 원준의 착각으로 그와 열결에 사귀게 되지만, 야속한 그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게다가 은근 슬쩍 부잣집 도련
님인 원준에게 들이대는 내숭9단 태희 때문에 영애의 일상도 바
람 잘 날 없다.

“위기의 회사를 구할 사람은 오직 영애뿐!”

직원은 단 네 명에 단칸방 사무실을 쓰는 소형 광고업체 ‘아름
다운 사람들’은 영애와 동료들에게 찌질하지만 애증으로 가득
한 회사다. 영애가 맡은 중요한 PT에서 경쟁사와 시안이 똑같
아 동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시안이 경쟁사
에 유출됐다?! 범인은 시안을 만들었던 영애 혹은 경쟁사에서
리브코를 받던 과장? 동료들의 오해를 풀고 회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기업 공모전에 도전하게 된 영애! 기사회생을 위해 고
군분투하는 영애와 동료들은 찬란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영애역 김현숙

중소 광고기획사 ‘아름다운 사람들’의 디자이너로 당찬 성격에 일
도 잘하지만 동종하고 못생겨서 억울한 30대 노처녀. 막돼먹은 세
상에 맞서다가 본인이 막돼먹어 버린 여자.

07~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0 뮤지컬 ‘넌센세이션’
05 개그콘서트 ‘출산드라’ 외



영애역 박지아

10 뮤지컬 ‘화려한 휴가’
09 에던버러 페스티벌 출품작 ‘몽연’
06 뮤지컬 ‘밴디트’
05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외



원준역 최원준

부잣집 출신 꽃미남 신입사원으로 착하고 젠틀 하지만 곱게 자란
까닭에 업무능력은 떨어진다. 영애와 태희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로 사랑의 갈등의 중심에 선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늘 영애의
도움을 받는 영애의 골치덩이인 후배다.

10 싱글 ‘Mistful Days’ 발매 / 07~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07 뮤지컬 ‘러브 인 카푸치노’ / 05 드라마 ‘열아홉 순정’
06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 외



태희역 김유영

‘아름다운 사람들’ 인턴사원으로 전형적인 성형미인이며 다소곳하
고 순진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미인계로 출세와 사랑을 독차지하
려는 야심 많은 악녀이다.

11 뮤지컬 ‘늑대의 유혹’ / 10 연극 ‘너와 함께라면’
09 스프링 어웨이크닝



박과장역 임가홍

사장에게 아무하며 적당히 때우는 잡초같은 영업과장으로 사장과
함께 사무실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중간관리자이다.

11 뮤지컬 ‘독식 히어로’, ‘젊음의 행진’, ‘김종욱 찾기’
10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 07 뮤지컬 ‘뮤직인마하트’
06 뮤지컬 ‘달고나’ 외



지원역 백주희

영애의 회사 동료이자 절친으로 자극적인 옷차림에 예뻐장하지만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술을 좋아하고 불 같은 성격이
라 박과장과 티격태격한다

11 뮤지컬 ‘늑대의 유혹’, ‘젊음의 행진’
10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락 오브 에이지’
09 뮤지컬 ‘아이 러브 유’ / 07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외



사장역 서성중

광고기획사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장으로 일명 대머리독수리이
다. ‘아웅’을 즐겨보며 성취동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매너 제로
의 짱들이 사장으로 직원들 편애가 심하며 특히 영애에게 잔소리
가 심하다

10~ 뽀레 / 08~ 라이언 1탄 외

기획공연 no.2

3. 3(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티켓구입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선 · 서경덕의

Talk Concert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무료 초대공연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폭풍이 몰려온다.
토크콘서트 사회자로 활동 중인 남경림의 사회,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나눔천사" 선",
그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초청!



나눔 천사 '선'



서경덕교수



남경림(사회)



카피머신



스윙즈

이제 대세는 '토크 콘서트'!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기능을 담으면서 SNS를 통하여 숨겨져 있던 나와 너를 밖으로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도록 한다. 이것이 일방적인 강연, 공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토크 콘서트는?

나눔천사" 선" 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전문가" 서경덕교수" 를 멘토로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희망과 공감의 무대!

'나눔은 밥이다' 라는 주제의 선과"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이라는 서경덕의 특별한 스토리!

토크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카피머신과 스윙즈를 초청,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즐거운 무대!

스위트콘서트 시즌5

김호영의 뮤지컬 파티

스위트콘서트 시즌5

2009년부터 시작된 스위트콘서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자체제작공연으로 이번 2012년에 시즌5를 맞이하게 되었다. 3년간의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이미 이 공연을 통해서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다녀갔다. 뮤지컬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에 이어 2012년에는 최정원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최정원과 톡톡튀는 진행으로 울산에서도 이제 인기 유명인이 되어버린 김호영을 2012년 한해에 3회씩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공연캐릭터가 아닌 실제로 만나다!!!

공연 안에서 극중 캐릭터로만 만날 수 있는 뮤지컬배우, 하지만 스위트콘서트에서는 마치 옆집 오빠나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으로 배우와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콘서트는 제목그대로 관객에게 편안하고 달콤한 추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공연이다.

유명 뮤지컬 배우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

"영화음악은 옛 여인의 향수이다"라고 말했던 세계적인 영화광 장 킵 고다르...

스위트콘서트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뮤지컬 속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면 그 뮤지컬을 봤을 때의 감흥을 또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공연의 추억을 스위트콘서트로 정리하자.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좌충우돌 실수담, 배우가 되기까지...)

배우들이 들려주는 무대 뒤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 수동적인 관람 공연이 아닌 무대와 객석이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만남!!

유쾌함, 즐거움, 감동 그리고 추억

김호영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주는 추억, 그리고 감동적인 뮤지컬 넘버를 통해 그 공연에서 맛보았던 감동을,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당신의 친구, 남편, 직장동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 이것이 울산문화예술회관 스위트콘서트의 행복입니다.

기획공연 no.3

3. 8(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전석 10,000원
(회원 30%, 단체 20%할인)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구입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전화 052.275.9623)

김호영
동국대 연극학과 졸업
전국청소년연극제 서울예선 우수연기상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 우수 연기상
동국청소년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DIMF 2006(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신인상

조순창
뮤지컬 '모스키토', '마리아 마리아', '행릿, 행릿 : 웰드버전', '연탄길', '노트르담 드 파리', '삼총사', '몬테 크리스토', '남한산성', KBS 드라마 스페셜 '락락락', '기쁜 우리 젊은 날'

최수진
09 뮤지컬 '살인마 잭'
10 뮤지컬 '궁'
11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겨울연가'
SBS 드라마 '싸인', KBS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참여

아이린
뮤지컬 '삼총사', '락 오브 에이지', '몬테크 리스토', '마리아 마리아', '드림걸즈', '스캅 어랏', '시카고', '캠블러', '렌트', '키스 미 케이트', '클레오파트라', '웨딩싱어', '코러스라인',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대형뮤지컬에서 호흡을 맞춰온 남, 녀 팀원들로 구성된 뮤지컬 앙상블

사회_김호영



조순창



최수진





2012 정기연주 시리즈 名作Ⅱ 브람스 교향곡 4번

Arts
Friend

시립예술단공연 no.1

2012. 3. 9(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아노 조재혁(성신여대 교수)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독일)

고전형식에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난 새로운 기교를 융합하여 절대음악에 정진한 브람스는 온후하고 독실한 인격을 지닌 작곡가였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브람스는 바하와 베토벤에 애착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여 베토벤에게서는 고전적인 형식을 이어받았고, 바하에게서는 다성(多聲)적인 요소를 배워 고금에 비할 수 없는 명작들을 남겼다. 브람스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여 20세 때에는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와 연주회를 가졌었다. 브람스는 레메니와 여행하면서 유명한 음악가들과 접촉할 수 있었는데 하노버에서는 요하힘을 만났고 바이마르에서는 리스트, 뒤셀도르프에서는 슈만을 만났다. 슈만은 그가 발간하는 음악잡지 『음악신보』에 ‘위대한 음악의 예언자 브람스 나타난다’라고 대단한 찬사로써 소개하였는데, 슈만에게 알려진 것은 젊은 브람스의 위대함을 일찍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60년에 그는 선배들이 활약하던 빈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신고전악파”라 불릴 만큼 절대음악에 온갖 힘을 쏟은 작곡가였다. 그의 4개의 교향곡은 그의 작품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그 외에도 오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다. 특히 그의 가곡은 슈만의 뒤를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가곡은 철두철미하게 낭만적인 작품이었다. 그는 낭만음악 시대의 인물인 만큼 기악곡에 있어서도 빼대는 고전형식을 취했지만 낭만적인 정서가 풍부히 깃들여 있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54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교향곡 4번’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54회 정기연주회는 2012년 명작시리즈 두 번째로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준비하였다. 2011년 7월 ‘브람스 교향곡 2번’에 이은 브람스 두 번째 순서이다. 브람스는 베토벤의 고전형식과 바흐의 다성음악적 양식을 가장 잘 계승한 작곡가이다.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 제4번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제3번 교향곡을 작곡한지 얼마 후인 52세 때에 쓴 것인데 노년기에 이른 브람스의 심경의 깊이가 나타나 있다. 그의 다른 3개의 교향곡과는 달리 곡의 성격도 꺾이나 고립되어 있고 애수가 잠긴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또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이 함께 연주된다. 이 서곡은 브람스가 1880년 여름에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데 감사의 표시로 작곡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브람스의 슬픔과 기쁨의 음악적 표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완벽한 테크닉과 구성력, 뛰어난 통찰력과 과장 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피아니스트 조재혁

“능숙한, 눈부신 테크닉과 꾸밈없는 진실한 음악” - 뉴욕 타임즈

“재빠른 손가락과 놀랍도록 넓은 표현의 영역” - 스타 텔레그램, 텍사스

“눈부신 테크닉, 견고한 곡의 해석” - 뉴욕 콘서트 리뷰

감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흠 잡을 데 없는 테크닉과 구성력, 뛰어난 통찰력과 과장 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연주자로 평이 나 있는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조재혁은 연 70회 이상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정상급 피아니스트로, 특히 2011년부터는 KBS1FM의 가정음악 프로그램 ‘위드 피아노’ 코너에 고정게스트로 출연하여 해설을 곁들인 라이브연주 장르를 개척하고 있으며, KBS1TV의 클래식오디세이에 해설가로도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글.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PROGRAM

- 브람스_대학 축전 서곡
- 리스트_피아노 협주곡 제1번
- 브람스_교향곡 제4번

03.09

예술감독 겸 지휘자 취임기념 새 봄맞이 합창소리



Arts
Friend

시립예술단공연 no.2

2012. 3. 20(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구 천(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피아노 김혜은, 강혜진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할인)

2012년 첫 정기연주회이기도 한 제74회 정기연주회는 새로이 울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갈 구천 제6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취임을 기념하는 특별연주회로 꾸며진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힘찬 출발과 생명력의 향취를 담았으며 더불어 앞으로 울산시립합창단이 펼쳐나가게 될 지역성을 담은 울산의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자 늦겨울과 이른 봄의 정서를 담은 곡과 서민들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창곡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선곡하였다.

더불어 20세기 영국의 대표작곡가인 엘가의 합창 음악 등 아카데미한 곡에서부터 다양하고 신명나는 곡들로 새로운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지휘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고 있는 울산시립합창단의 역동적인 모습을 울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 글.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PROFILE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구 천

“탁월한 음악적 해석 능력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지휘자”로 평가 받는 구 천 지휘자는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웨스트민스터 코어 칼리지 Summer Session(1989-1992)을 수료했고 거기서 지휘법을 공부했다.

20년 동안 국립합창단에서 합창활동을 하며 나영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지휘 공부를 시작하였고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광주시립합창단(1998, 2007)과 목포시립합창단(2005), 제주시립합창단(2008), 원주시립합창단(2008), 국립합창단(2011)을 객원 지휘했다. 전주 시립합창단 지휘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해외(미국, 캐나다, 피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연주를 성공리에 지휘하였고 정기연주회를 통해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함으로써 심오한 예술성을 표출하였다. 특히 세련된 비딩과 뛰어난 음악 해석능력으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보여 주었으며 끊임없는 합창활동으로 합창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며 서일대, 충신대, 군산대, 전남대, 전주대, 추계예술대 등에서 합창과 합창 지휘법을 강의하였다. 광주시립합창단 재직시 고품격 합창 사운드를 구사하여 전문합창단으로서의 품위를 한층 격상시키고, 2009년 5월 일본합창연맹의 초청으로 일본합창세미나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광주시립합창단이 연주하여 일본 합창계를 놀라게 하며 일본 합창계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전국시립합창단연합회 회장과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 한국합창지휘자 협회를 이끄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울산 시립합창단 예술감독겸 지휘자로서 역대 훌륭하신 지휘자님들의 뜻을 이어 명실상부한 한국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과 어우러져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PROGRAM

- 20세기 영국합창
Elgar / O Happy Eyes / Love / My love dwelt in a Nothern Land
- 사랑의 노래
허결재 / 봉선화, 이건용 / 혼자사랑
- 남성합창
German folk / Muss I denn, Fred Parris / In the still of the night
- 여성합창
이민정 / 꽃샘추위, 이선택 / 목련꽃
- 합창 음식
정덕기 / 시래기, 이순교 / 짜장면
- 합창의 봄
현제명(안현순 편곡) / 나물 캐는 처녀
박태준(이선택 편곡) / 동무생각



그림자로 보는 오페라 마술피리

Arts
Friend

시립예술단공연 no.3

2012. 3. 30(토) 오후 7시 30분
3. 31(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중규(부지휘자)
출연 극단 영 (그림자극)
입장료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관람연령 만 4세 이상 입장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12년 가족음악회 그림자로 보는 오페라 '마술피리'

다양한 장르의 기획으로 시민들에게 클래식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12년 가족음악회는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이다. 2010년 공연에 이어 2년 만에 앵콜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2시간 30분의 대작인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그림자극으로 줄거리를 이해하고 주요 장면의 음악만을 발췌하여 귀까지 즐거운 1시간 분량의 가족음악회로 재구성하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 말년의 최고 걸작 오페라 <마술피리>는 그가 죽기 두 달여 전에 완성된 작품으로 모차르트 예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로 된 작품이면서 대사중심으로 진행되는 가극 형식이다. 이로써 19세기 독일 오페라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독일 고전동화에 민속적 오페라 형식인 징슈필의 대사로써 작곡되었는데 단순한 징슈필의 세계를 넘어서 독일 오페라의 고전을 창조하고 낭만과 오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걸작이다. 이 오페라의 대본은 본래 독일 최대의 서사시인이었던 빌란트의 동화집에 있는 회교도의 전설 루루(Lulu) 또는 마술피리를 매니저이며 극작가였던 시카네더와 그 극장의 배우였던 기제케 등이 번안한 작품이다. 모차르트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세상을 뜬 해에 만든 곡인데, 초연 당시에는 대단한 평판도 없이 실패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사후, 차츰 인기를 얻어 파산에 직면했던 상연 극장을 소생시키고, 괴테와 베토벤의 극찬까지 받았다. 또한 로맹 롤랑은 '이 오페라에서는 모든 것이 빛이다. 빛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격찬까지 하였다고 한다. 귀신의 혼과 마법, 동양의 왕자 등 무릇 현실을 떠난 가상의 줄거리로 되어 있지만,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코믹함으로 그 당시 대중들이 즐겨했던 것이며 극장주인으로서도 흥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 글. 최연수(울산시립교향단 단무장)

03.30
31



금미연 | 목포시립무용단
강강수월래전상서_해원(解冤)



이정윤 | 국립무용단
칠애(漆夜)에 올리는 춤



김진미 | 풍유무용단
오, 마이갓



노연정 | 울산시립무용단
엄마야, 누나야



안덕기 | 국립국악원무용단
2012승무_variation1



최태현 | 서울시립무용단
백혈화우(白血華雨)_흰피가 꽃비되어..



김시현 | 부산시립무용단
75분의 1초

Arts Friend

시립예술단공연 no.4

2012. 3. 16(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안 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출 연 임미례, 이정윤, 안덕기, 최태현,
김진미, 김시현, 금미연

사 회 강주리

입장료 전석 5천원(회원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여러분을 관중 평가단으로 모십니다!

- ✓ 공연장 입구에서 평가서와 볼펜을 받는다
- ✓ 눈과 마음을 열고 공연을 즐긴다
- ✓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최고의 공연'이라 생각되는 무용수에게 체크한다
- ✓ 평가서를 제출한다
- ✓ 피날레 공연을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보고 받는다

울산시립무용단

나는 무용수다

관중평가단이 전국 최고수준의 무용수의 공연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울산시립무용단은 오는 3.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무용수다'는 인기 TV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의 청중평가단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공연을 관객들이 평가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이다.

'나는 무용수다'는 울산시립무용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등 7개 무용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용수들이 출연하여 품격 높은 공연을 선사할 것이며, 또한 울산시립무용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춤사위와 가락을 지닌 장고춤과 민속무용으로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의 멋과 흥이 어우러진 소고춤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 관객들의 감성을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 글.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03.16



Arts
Friend

시립예술단공연 no.5

2012. 3. 27(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김종규(지휘자)
지도자 최미경, 이지혜, 김성덕, 김상조
특별출연 트럼본 7중주
입장료 전석 1천원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청바지 음악회

PROGRAM

- 현악 앙상블 _
 - 세인트 폴 조곡/홀스트 - 특별 출연(트롬본 앙상블)
 - 런던데리, 라썬스트럼본
- 전체합주_
 - 트리치 트라치 폴카, 피치카토 폴카, 헝가리안 댄스 1번
 -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 자유의 종 행진곡
 - 라데츠키 행진곡 / 요한 스트라우스

2012년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새 시즌을 맞아 지난해보다 더욱 알차고 유익함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온 가족이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하는 “청바지 음악회”는 힘찬 새 출발의 의미를 담아 신년에 많이 연주되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와 라데츠키 행진곡 그리고 행진곡의 왕이라 불리는 수자(Sousa)의 작품 “자유의 종” 등 씩씩하고 당당하면서도 때로는 아름답고 흥겨운 프로그램들로 마련하였으며, 이 밖에도 트롬본 7중주가 소개되는데 트롬본은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남성적인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는 (포르테시모)의 웅장한 연주역할을 맡아오면서도 솔로 연주 시에는 감성을 녹이는 애절함이 극치를 보이는 악기이다. 울산 미래의 주역으로 이루어진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청바지 음악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글.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단 단무장)

03.27

시립예술단공연 no.6

2012. 3. 6(화)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한성웅(지휘자)

지도자 안은정

반주자 김나리

특별출연 주선영(소프라노)

울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

입장료 전석 1천원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기획연주회

사랑이 있는 풍경

PROGRAM

- 이태리 가곡 합창 메들리 _ 편곡/안현순
Caro mio ben(오! 내 사랑), Nel Cor piu non mi sento(내 마음엔 더 느껴지지 않네)
Le Viollete(제비꽃), Sogno(꿈), Matinata(아침의 노래)
- 시립합창단 남성중창
후니쿨리 후니쿨라, 즐거운 여행자정
- 한국시에 붙인 합창곡
못잊어(김소원 시), 별(조성은 곡), 저 구름 흘러가는곳(김용호 시, 조성은 곡)
- 초청성악가_ 주선영
웃음의 아리아, 꽃구름속에
- 사랑이 있는 풍경
사랑일기(하덕규 곡, 황수진 편곡) / 사랑(조성은 곡) / 우리들의 사랑(정치근 시, 한상훈 곡)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의 “사랑이 있는 풍경”은 봄과 사랑의 주제가 담긴 이태리 유명 가곡과 한국의 시(詩)에 붙인 합창곡을 선보인다. 그리고 합창 프로그램 가운데 박진감 넘치는 남성중창(시립합창단)과 국내 정상급 소프라노 주선영이 출연해 주옥같은 아리아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본 공연은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와 흥겨운 노래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단 단무장)



M O R N I N G
c o n c e r t
s e a s o n . 5

봄을 노래하다

3월, 국악과 클래식

3.29(목) 오전 11시 소공연장

국악과 클래식으로 봄의 소리를 가득 담은 음악회 “봄을 노래하다”는
우리의 언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Arts Center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 도시 | 뉴저지 뉴아크

브람스의 사랑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에 나타난 3월 풍경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무대 뒤 이야기

Part.2 UCAC는 지금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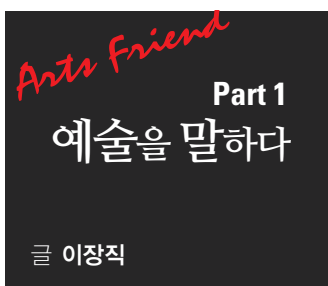
NOTICE

Part.3 3월의 공연 · 전시

공연 가이드

전시 가이드

3월의 공연 · 전시 캘린더



세계의 문화 도시 뉴저지 뉴아크

쇠퇴해가는 뉴아크 도심 재개발의 신호탄 “뉴저지 아트센터”

1967년 7월 12일 미국 뉴저지주 뉴아크 시내의 한 도로에서 흑인 택시 기사 존 스미스는 택시 앞에 이중 주차해 놓은 경찰차를 피해 빠져나가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 거세게 항의하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흠씬 얻어맞았다. 그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졌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뉴아크에는 흑인 폭동이 무려 6일간 계속되

었다. 폭력과 약탈을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충돌로 23명이 사망하고 7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500여명이 체포됐다. 1000만 달러가 넘는 재산 손실도 발생했다. 당시 흑인들이 겪었던 인종차별과, 실업, 가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브리지 스트리트와 잭슨 스트리트 브리지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폐쇄됐다.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뉴아크 도심에서 밤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인과 흑인 중산층들은 모두 교외로



이사를 가버렸다. 뉴아크의 인구는 1900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 현재 뉴아크의 인구는 1930년에 비해 38%가 감소했다. 슬럼가로 쇠락해버린 도심은 우범 지역으로 바뀌었다. 2000년 현재 뉴아크 인구의 55%가 흑인, 20%가 남미 계통이었고 백인은 29%에 불과했다.

뉴아크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뉴저지 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인구는 55만명으로 한때 미국 5위의 소비 도시였다.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 4개 노선이 뉴아크를 통과한다. 시내에 국제공항까지 있다.

하지만 뉴아크의 랜드마크로 군림했던 빌딩들은 텅텅 비어갔다. 폭동 이후에 지은 오피스 빌딩들은 아예 도로 쪽에 출입문을 내지 않았다. 뉴아크에 있는 사무실로 통근하는 사람들도 빌딩 사이로 난 구름다리로 출근했다가 일이 끝나면 곧장 퇴근해버렸다. 뉴아크 펜 스테이션에서 사무실 빌딩을 연결하는 스카

이웨이를 이용하면 바깥 도로 바닥을 한 발짝도 딛지 않아도 된다. 밤까지 도심에 남아 있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내에 차를 주차했다간 누군가 어느새 차를 훔쳐간다는 얘기마저 돌았다. 펜 스테이션에서 뉴욕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뉴아크 도심으로 들어올 리도 만무했다. 도시가 낮 시간에만 열려있다면 반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뉴아크 시민들은 볼만한 공연을 보기 위해 뉴욕행 기차를 타고 허드슨 강을 건너야 했고, 뉴욕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 브로드웨이나 링컨센터 공연을 관람한 후 뉴아크행 막차를 타야했다.

1997년 뉴아크 폭동 30주년이 되는 해 개관한 뉴저지 아트센터(NJPAC)는 쇠락해가는 도심을 문화로 되살리는 극약 처방이다. 이미 클리블랜드와 피츠버그,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클리블랜드는 대공황 이후 미국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파산을 선언했지만 플레이하우스 스퀘어, 유클리드 애브뉴의 영화관과 보드빌 극장 4개가 성공하면서 포르노와 마약으로 얼룩졌던 다운타운이 업그레이드됐다. 한때 남부럽지 않은 철강 도시에서 공해 도시로 전락하고 만 피츠버그도 베네딕 아트센터 개관 이후 도시 전체에 재생의 불씨를 당겼다. 뉴욕 링컨센터는 건축이나 도시 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 뉴욕을 미국의 공연 메카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마약과 헤로인 거래로 유명해 '니들 파크(바늘 공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브라이언트 파크와 웨스트 사이드를 뉴욕 최고의 주거지로 바꿔놓았다.

1986년 7월 1일 흑인 최초로 뉴아크 시장에 취임한 샤프 제임스는 아트센터를 짓지 않으면 도심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워싱턴으로 가서 쿿대가 높기로 유명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잭 캠프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캠프는 대뜸 이렇게 소리쳤다.

“뉴아크에 아트센터를 짓겠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노숙자, 무주택자, 에이즈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말ियो.”

하지만 시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대공황 때도 브로드웨이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벽돌과 시멘트로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실의에 빠져 신음하는 영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TF가 출범한 것은 1986년 12월이다. 이듬해 6월 밀리터리 파크 건너편 부지를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트센터를 지어 주겠다는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1989년 6월 로렌스 골드만이 NJPAC 회장에 취임했다. 프린스턴대에서 뉴아크 정치발전사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다. 1970년엔 최초의 흑인 시장 당선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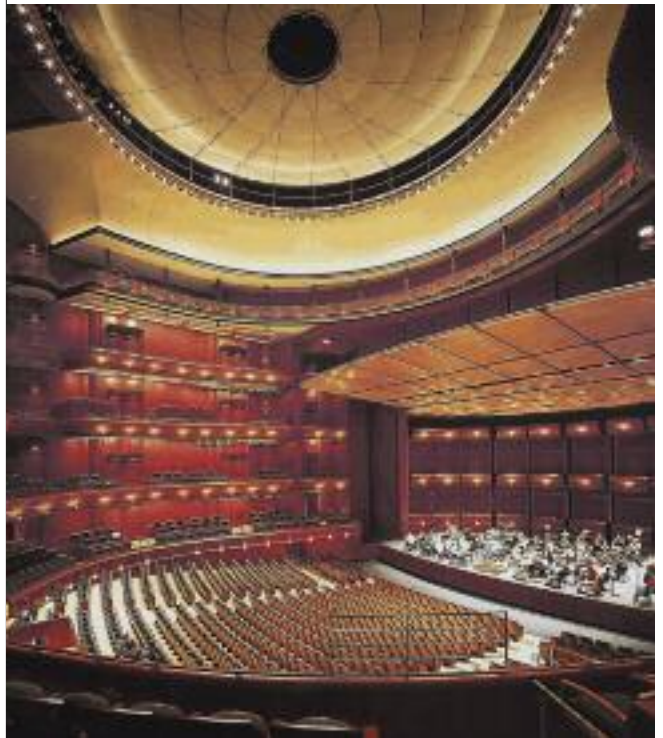
는 대학 교수를 그만 두고 뉴저지 패터슨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욕 이스트 리버에 있는 루즈벨트 섬 뉴타운 개발 계획에도 관여했다. 무엇보다 뉴욕 카네기홀의 부동산개발 팀장을 맡아 인근 주차장 부지에 60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지어 카네기홀의 수입을 10배로 불러놓은 사람이다.

샤프 제임스 시장과 로렌스 골드만 회장의 끈덕진 로비로 1989년 9월 미 하원 예산심의위원회는 NJPAC의 설계비용으로 12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1991년엔 뉴저지 경제발전공사가 부지 구입비 마련을 위해 면세 수익채권을 2150만 달러어치 팔았다. 1993년 경제회복기금에서도 4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같은 해 5월 NJPAC가 들어설 자리에 있던 밀리터리 파크 호텔 건물이 해체됐고 10월 착공식이 열렸다.



1995년 3월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뉴저지 주지사는 1997년 개관 일정에 맞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4400만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 미 연방정부 상공부 경제개발국에서는 시어터 스퀘어 건설을 위해 NJPAC에 2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듬해 3월에는 120년전 뉴아크에서 창업해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로 성장한 프루덴셜에서 350만 달러를 기부했다.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연주하는 NJPAC의 대극장은 '프루덴셜 홀(2750석)'로 명명했다. 프루덴셜 재단은 2004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써달라고 10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놓았다.

1997년 10월 개관한 NJPAC 건물은 주변 공장지대나 오래된 철교 등과 잘 어울리면서 관객에게 부담없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붉은 벽돌로 마감했다. 교향악 공연을 위해 무대에 9m 높이의 이동식 반사판인 콘서트 타워를 병풍처럼 설치했다. NJPAC 앞 파크 플레이스는 뉴아크 출신의 재즈 가수 새러 본의 이름을 따서 '새러 본 로드'로 명명했다. NJPAC의 개관으로 주변 지역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고급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고 밤늦도록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다. NJPAC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고 인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도 많아졌다. 아이리시 펍도 두 곳이나 생겼다. 어틀랜틱 리그 소속의 마이너리그 야구팀 베어스가 인근으로 홈구장을 옮긴 데 이어 MBA 농구팀 넷츠와 아이스하키의 강자 데블스의 새 경기장도 가까운 곳에 들어섰다.

2006년 7월에는 브로드스트리트 스테이션과 펜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뉴아크 경전철이 개통됐다. NJPAC 바로 옆에는 연주자를 위한 아파트 2동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섰다.

NJPAC는 개관 당시 기준으로 미국의 공연예술센터 가운데 예산 규모 6위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 중 공연기획(40%) 다음으로 예술교육(13%)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급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보여준 다음 직접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연극 학교'가 대표적이다.

NJPAC를 포함한 뉴아크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샤프 제임스 뉴아크 시장은 무려 20년간 다섯 차례 시장을 연임했다.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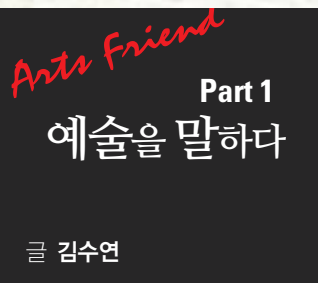
브람스의 사랑



우수와

고독의 작곡가로 알려진 요하네스 브람스(1833~1879). 평생 독신을 고수하며 스승인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연모한 이야기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하지만 브람스 인생에 있어 클라라 슈만을 향한 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은 아니었다. 물론 브람스에게 클라라는 첫사랑이었고,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브람스의 인생에는 클라라를 포함해서 총 일곱 번의 사랑이 있다. 그의 〈현악 6중주곡 2번〉은 아가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클라라에 대한 사랑 이후 브람스가 처음 만난 ‘아가테 폰 지볼트’라는 여성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녀는 한때 브람스와 약혼까지 하지만 결혼 바로 전에 이별하게 됐다. 아가테는 괴팅겐 대학 교수의 딸로 프로 못지않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 기술을 가진 소녀였고 브람스가 그녀에게 반한 것은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1858년 친구인 율리우스 오토의 그림을 통해 처음 만났고 이후 브람스는 아가테를 위한 〈8개의 노래와 로맨스 작품 14〉와 〈5개의 시, 작품 19〉 등의 많은 가곡을 작곡하면서 마침내 장래를 약속하는 사이로까지 발전을 했다. 하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결혼을 선언해야 하자, 브람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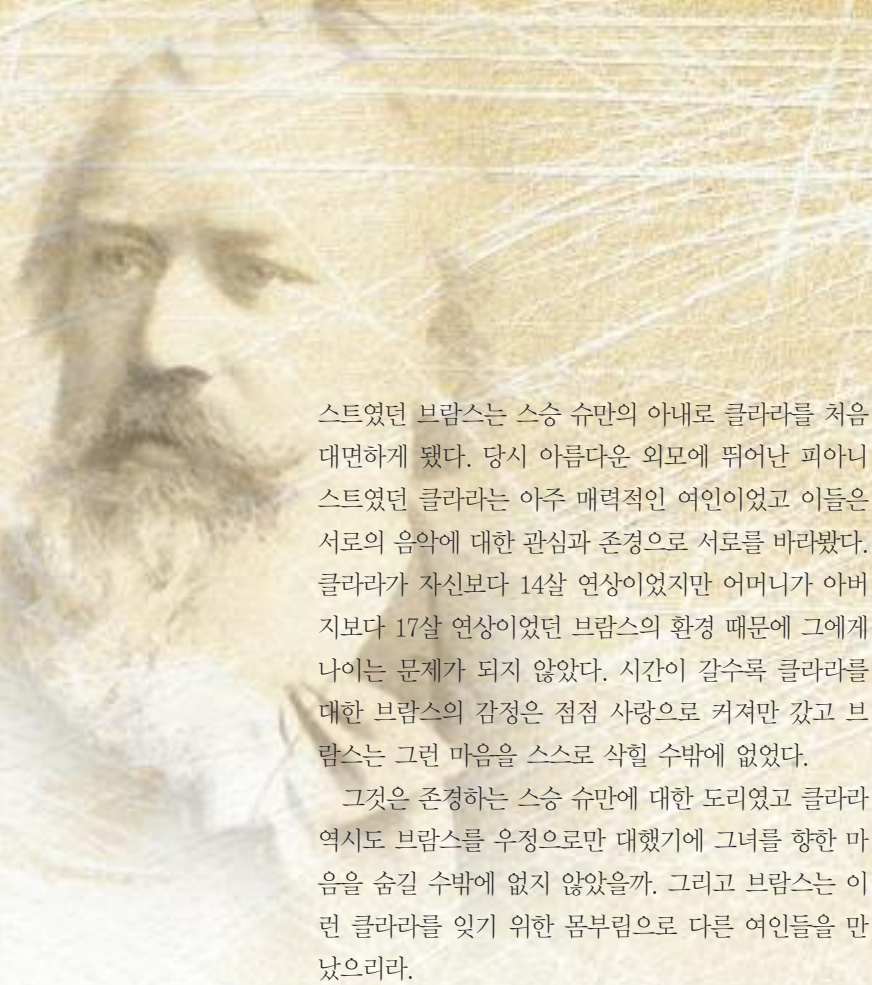


망설이게 됐고 아가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다시 만나야겠소. 하지만 나는 숙박당할 수는 없소. 내가 다시 돌아가 당신을 팔에 안고 키스를 해도 좋을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좋을지 써 보내주오”

아가테는 사랑은 하지만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브람스의 편지에 그만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브람스는 이때의 실연의 상처를 〈현악 6중주곡 2번 아가테〉를 작곡하며 달랬다.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 속에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아가테와의 연애에 중지부를 찍은 거였다. 사람은 사랑이 강렬하고 진실할수록 그 사랑이 끝나면 더 이상의 사랑은 없을 것이라고 외친다. 그렇듯 브람스도 아가테와의 사랑을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 칭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브람스는 1862년 빈 여성 합창단의 소프라노였던 오틀리에 하우어를 짝사랑했고, 1869년 슈만의 셋째 딸 율리와 사랑에 빠진 뒤 실연당했고, 1890년 만년에 브람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콘트랄토 알리스 바르비와 짧지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등 화려한 연애사를 보였다. 자신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던 아가테 이후로도 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끝내 브람스는 그 누구와도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브람스는 왜 사랑은 늘 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일까? 독신주의자였을까, 아니면 스승 슈만의 아내 클라라에 대한 사랑에 미련이 있어서였을까. 1853년 20살의 나이.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 피아니



스트였던 브람스는 스승 슈만의 아내로 클라라를 처음 대면하게 됐다. 당시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이들은 서로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존경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클라라가 자신보다 14살 연상이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17살 연상이었던 브람스의 환경 때문에 그에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클라라를 대한 브람스의 감정은 점점 사랑으로 커져만 갔고 브람스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삭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존경하는 스승 슈만에 대한 도리였고 클라라 역시도 브람스를 우정으로만 대했기에 그녀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람스는 이런 클라라를 잊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른 여인들을 만났으리라.

하지만 20살에 시작된 첫사랑... 클라라를 향한 마음은 브람스의 평생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플라토닉한 사랑은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슈만이 죽은 이후 클라라와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들 때마다 그녀 곁에 있었다. 정신병이 심해진 슈만이 라인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녀 곁으로 달려갔고 6명의 아이들과 배속에 일곱 번째 아이를 배고서 실의 빠져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며 곁으로는 스승 슈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클라라를 절망의 구렁에서 건져내고 싶은 게 진짜 이유였다.

그런데 슈만의 죽음으로 비로서 둘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을 장벽이 없어진 이후에는 정열적이었던 브람스의 사랑 표현이 점차 수그러들었다. 장애물이 없어지자 사랑이 식은 것일까? 아니면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현실적 부담이 너무 컸던 탓일까?

40년에 걸쳐 이뤄진 브람스와 클라라 사이의 편지에서 보면 '경애하는 부인'에서 친밀한 표현인 '나의 클라라에게'로 호칭은 변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친구여'라며 우정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애처롭게 담겨져 있다. 아마도 클라라를 연모하면 할수록 '스승

의 아내, 사랑해서는 안되는 여성을 사랑하고 말았다'는 정신적인 고뇌가 컸으리라.

그래서 슈만의 죽음 이후에도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우정이란 이름 아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람스의 행적과 편지 자료, 전기 작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브람스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을 어느 한 사람에게 완전히 구속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신의 예술적 감성과 창작에 대해서 혼자만의 자유가 필요했고, 그것을 브람스는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은 한 여인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브람스가 결혼의 구속이 부담스러워 독신을 고수하며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일곱 번의 사랑이 있었지만 평생에 걸쳐 단 한 여인에게만 마음을 바쳤던 탓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브람스의 음악 인생에 있어 클라라를 향한 연심이 빚어낸 작품들, 〈피아노 소나타 작품 2〉를 비롯해서 〈피아노 사중주 c단조〉, 슈만이 죽고 난 뒤 클라라를 위해 만든 레퀴엠 〈남아있는 자를 위한 레퀴엠〉, 그리고 클라라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자신 역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서 작곡한 〈네 개의 엄숙한 노래〉 등의 작품에서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클라라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뿐이다. 1896년 5월 20일, 77살의 나이로 클라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브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경험 이었고, 가장 위대한 가치였으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였을까? 브람스는 클라라가 죽은 그 다음해에 64살의 삶을 아쉽지만 아름답게 마감했다. 때로는 음악이 그 어떤 말과 글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을 전한다. 브람스의 사랑이 남긴 음악들로 브람스가 전하는 그의 삶을 느껴본다.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에 나타난 3월 풍경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의 흐름은 인류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였다. 해가 떴다 지는 시간을 하루로 정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만큼의 날을 한 달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공전으로 일 년을 알았다. 타원형의 공전 궤도로 계절이 바뀌고 동식물의 활동이나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등의 자연 현상으로 시간을 측정해왔다. 이런 흐름을 통해 사람들은 시간을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달력을 만들어 시간을 통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계획했다.

이런 자연의 흐름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의 하나로 봄의 시작을 들 수 있다. 봄은 태양이 고루 베푸는 온기를 받은 만물과 대지가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는 시간이다.

이는 해[陽]라는 따뜻한 불[火]의 옛말이 ‘불’과 ‘옴’[來]이 합쳐진 ‘봄’이라는 우리말은 물론이거니와, 햇빛을 받아 풀이 돋아 나오는 모양을 따서 지은 글자인 春, 풀이 솟아 나오는(spring up) 때를 말하는

영어 spring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봄의 특징이다.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는 봄에 제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4절기를 정해 각 절기마다 해야 할 일과 금기 사항 등을 정해 두었고, 조선 시대에는 <농가월령가>를 지어 한 해 동안 계절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켰다. 가령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 농사 준비를 시작해, 우수에는 씨앗을 고르고, 춘분에는 농사를 시작하며, 청명에 밭을 갈고, 곡우에 벼씨를 담그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러한 농경 사회의 풍습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각 시기에 해야 하는 노동의 기록과 안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졌다.

중세 시대에 널리 제작된 기도서에도 각 달에 해당하는 노동 장면을 그리곤 했는데, 15세기 초반 랭부르 형제(Limbouurg Brothers)가 제작한 필사본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Les tres riches heures du Duc de Berry)>는 열두 달을 모두 각각 한 페이지씩 담아 묘사한 최초의 달력화로 알려져 있다. 베리 공은 프랑스 왕 샤를 5세의 동생인 베리 공은 정치적 야심보다는 예술품 수집에 더 큰 열정을 보였다.

하단에는 각 달에 있는 월례 행사가, 상단에는 하늘을 묘사한 반원형의 아치와 그 달에 해당하는 황도 십이궁의 별자리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당시의 농업 활동 장면 특징, 농민들의 복장과 사용했던 농기구, 귀족들의 여가 문화를 계절에 따라 배치했고, 배경에 등장하는 성들의 당시 모습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 시기 프랑스 미술의 백미로 손꼽을만하다.



랭부르 형제,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중 3월, 채색 삽화, 프랑스 상티이 콩데 미술관 소장.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3월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면, 상단 반원 부분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물고기자리와 양자리가 이달의 황도 궁을 표시한다. 하단의 사각형 부분에는 당시의 농촌 풍경이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경에는 낡은 옷은 입고 수염이 하얀 소작농이 소 두 마리를 끌고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른손으로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 소의 방향을 조절하고, 왼손으로 쟁기 손잡이를 잡고 있다. 쟁기의 각 부분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당시 농기구의 모습이 어

떠했고 어떤 식으로 땅을 갈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쟁기날이 지나가면서 노랗게 말라 죽은 풀로 덮여 있고 곳곳에 돌맹이가 널린 땅에는 이랑이 가지런히 생기고 한 해 농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농부의 다리와 쟁기 뒤로는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서양미술사에서 그림자가 처음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한다.

오른쪽 뒤로 약간 시선을 돌려보면 이렇게 갈린 땅 위에서 또 다른 농부가 허리를 숙여 땅에 뿌릴 씨를 주머니에 담으며 올해 첫 파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하얀 담으로 경계를 둘러친 포도밭에서 세 명의 인부가 포도나무 그루를 다듬고 버팀목을 대고 있다. 작은 집이 딸려있는 근처 포도밭은 이미 정리되어 단정한 모습이다.

물이 안 좋고 위생도 불량했던 중세시대 서양에서 포도주는 가장 좋은 음료수였고, 종교적 의미까지 더해져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포도주의 명성은 높은데, 이미 이때에도 이 지방의 포도주는 유명해서 영국이나 플랑드르 같은 곳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왼쪽 뒤로는 목동과 개가 양떼를 지키고 있어 3월에 시골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랭부르 형제, <베리 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중 3월, 채색 삽화, 프랑스 상티이 콩데 미술관 소장. 밭 사이에 놓인 길들이 교차하는 곳에는 몽주아(mon-tjoie)라고 하는 작은 하얀 탑 모양의 이정표가 서서 경계를 나타낸다. 그림의 배경에는 그림을 주문한 베리 공이 가장 아꼈다는 뤼지냥(Lusignan) 성이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그림의 전경에 있는 경관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성의 위치는,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암묵적으로 알려준다.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무대 뒤 이야기

Arts Friend Part 1 예술을 말하다

글 권혁민 | 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드기자

울산 문화예술회관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커다란 무대, 화려한 조명, 그리고 실감나는 사운드..공연을 좋아하고 많이 찾는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 무대의 앞면만 바라본다.

배우와, 연주자의 연기와 음악을 듣고 즐기고 감동을 안고 돌아간다.

박수소리와 환호성 그리고 음악소리 한마디 한마디 놓칠새라 숨죽이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무대 뒤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일반 관객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비밀스런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수 무대감독을 만났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무대가 앞에서 본 것 보다 엄청나게 크네요?” 감독님은 웃으시며 “얼마전에 뮤지컬 미스사이공 세트가 철수하고 난 뒤라 좀 깨끗하죠?” “그러네요 (웃음) 세계적인 뮤지컬을 울산에서 볼 수

있었다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자리를 옮겨 무대감독실로 향했다. 좁은 공간에 책상과 무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모니터가 달려 있는 무대감독실은 흡사 경찰서나 소방서의 상황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먼저, 최근에 끝난 세계 4대 뮤지컬 미스사이공에 대해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 보았다. “감독님. 미스사이공 무대가 엄청 화려하고 마치 한 공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디테일 했는데요 셋트가 얼마나 들어온거예요?” “이번 미스 사이공에 투입된 물량이 11톤 트럭으로 14대가 들어왔으니... 상상에 맡길게요 (웃음) 11톤 트럭으로 14대란다. (우리 집 이삿짐을 14번 싸야된다.) “굉장하네요.. 이런 대작을 마친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95년 10월 우리 예술회관이 개관한 이후 세계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사이공’을 개최한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친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했죠” 피곤함이고 함께 미스사이공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시는지 얹은 미소가 살짝 비친다. “감독님 이런 대작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을 수없이 치르시는데, 무대 뒤를 책임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안전’ 이죠 연기자나 오케스트라는 공연중 실수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안됩니다. 조그만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았다.

몇 년전에 있었던, 서울의 큰 공연장에 생긴 화재사건을 떠올려봤다. “매순간 매시간 공연이 끝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되요 신경이 곤두서죠. 막이 내리고 공연이 끝나 관객들이 빠져나가고 무대셋트가 철거된 후에야 비로소 담배 한 개비 꺼낼 여유가 좀 생기죠 (웃음)”

갑자기 미스사이공의 뒷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감독님 미스사이공 얘기좀 해주세요~ 힘드셨죠?” “힘들었죠..위낙에 대작인데다가 투입된 스태프들만 70여명이었으니..미스사이공만을 준비하는데만 몇주가 걸렸죠..하지만 모든 스태프들(사이공을 위한 전담 스태프와 회관상주 스태프)은 알고 있죠 땀흘린 만큼 완성도는 높아진다는걸.. 설 연휴도 반납하고 무대설치와 셋팅에 전념해준 우리 스태프들한테 지면을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대위의 상황을 알고 계셔

야 무대뒤도 조율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땔수 없죠 사실 제일 중요한건 배우와 스태프들간의 호흡이에요 무대위와 무대뒤가 따로 놀 순 없으니까요 부부사이라고나 할까..? (웃음)” “그..그렇군요 지휘자의 지휘봉, 오케스트라 그리고 조명에 무대전환까지.. 삼박자가 딱딱 맞아갔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편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감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감독님 공연이 없는 날에는 보통 뭐 하시나요? 달콤한 휴식?” 손사레를 치신다. “그리고 싶지만 무대에 있는 각가지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공연을 준비해야하니까요. 공연과 공연 사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 그 공연을 올리기 위해선 미리 무대도 꾸미고, 리허설도 하고 기계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한테는 공연이 쭉 계속 됩니다.(웃음)” “그..그렇군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공연만 봤나 봐요..지금은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린이 뮤지컬 부니부니가 있고요..교향악단의 웅장한 클래식 공연도 있죠..뮤지컬은 무대,소품, 조명등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고, 클래식은 무엇보다 최고의 음향을 들려주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죠”

감독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감독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큰 대작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적, 물적 시스템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문화산업에 동참하기위해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요..하지만 최고의 바람은 우리 스태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연을 마치는 것입니다.” “감독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감독님은 다시 공연장 한쪽 구석에서 작업중인 곳으로 묵묵히 향하셨다. 화려한 조명과 관객의 박수와 사랑을 받으며 펼쳐지는 공연 뒤에는 어둡고, 각종 장비들로 시끄러운 곳에서 시간과 싸우며 땀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rts Friend가 만난 사람들

2월 10일(금) 울산시립무용단 공연이 열리는 소공연장에서 우영동씨 가족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선으로 만남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게 좋을지... 잠시 고민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즉석 미팅을 제안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인터뷰 요청에 당황할 만도 한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라며 쑥스러워할 뿐,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응해주었다. 시작부터 훈훈하고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본 코너는 매달 우수회원 / 단체회원을 선별하여 공연장에서 짧은 만남을 통해 나눠 본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곳입니다.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대부분의 공연 예매자 리스트에서 '우영동'이라는 이름 적 자를 만난다.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이나 공연을 관람하나?

회사 또는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주1회 이상은 온가족이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한다. 많이 볼 때는 주 2~3회도 예술회관을 찾은 적이 있다.

공연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만 보나? 처음 이곳을 찾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나?

집 근처에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자동차문화회관 등도 이용하지만, 예술회관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서 공연 관련 정보를 문자나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처음 여기를 알게 된 계기는 울산시립교향악단 김홍재 지휘자 덕분이다. 김홍재 지휘자가 지휘한 '임진강'을 평소 좋아했는데, 그가 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찾았다. 처음엔 교향악단 연주만 몇 차례 관람하다가, 티켓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합창단, 무용단 등 다른 공연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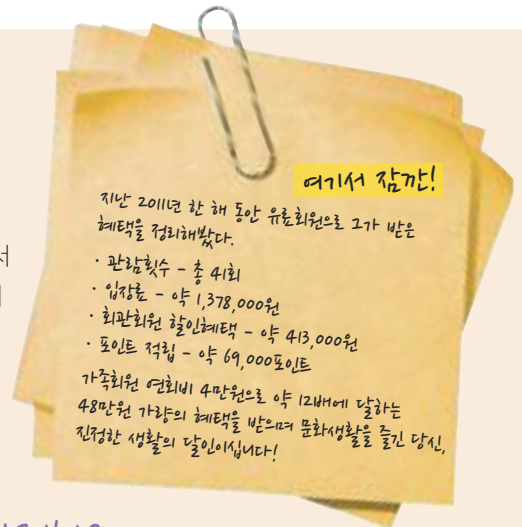
공연관람 내역을 살펴보면, 장르에 대한 편식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선호하는 것이 있나?

모든 공연마다 장르를 떠나 각각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 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공연을 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통합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느낀다. 일부 관객들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만을 찾아 공연장을 찾는데 두루 둘러볼 것을 권하고 싶다.

몇 년째 예술회관 유호회원인가?



2008년경부터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혼자 시간이 맞을 때 공연을 관람하곤 했는데, 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부터는 가족회원으로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예술회관 나들이가 시작됐다. 놀이방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미취학이었던 둘째 이후는 소공연장에서 놀게 하고 공연을 관람했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산이와 이후가 공연관람을 좋아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공연 시작보다 조금 일찍 와서 팸플릿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그러면 공연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테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겨워하고, 한숨 잘 자고 갈 때도 있다. 당장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 거짓말 아니겠냐(웃음). 그렇지만 분명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실제로 TV를 보다가 또는 특정 상황에 아이의 입에서 '전에 우리 이거 봤잖아!' 하거나 공연의 내용을 떠올리며 이야기 할 때는 내심 뿌듯할 때가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이 줄었다고 언론에서 말들 하지 않나. 아이들은 또래집단이나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부모는 생업으로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공연을 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도 값진 경험이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는 게 무엇보다 좋다. 공연을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공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같은 공연을 보고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술회관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경기도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수년전에 경주를 거쳐 울산으로 옮겨왔다. 경주에서도 예술회관까지 공연을 보러 다녔었다. 혹자는 울산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울산에서 얼마만큼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콘텐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직원들의 친절면에서도 나는 매우 만족도가 높다.

짧지만 의미 있는 인터뷰를 마치고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이산이와 이후. 어릴 때부터 즐겨 오는 곳이라 아이들에게는 제 집 앞마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엄마는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여겨 공연장 에티켓을 어길까 걱정'이라며 조용히 할 것을, 그리고 뛰지 말 것을 재차 얘기하지만,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저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길 바라본다.

/ 글. 김내영(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츠프렌드 기자)



NOTICE

● 2012년 하반기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신청

대관시설

·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면 적	객석수	면 적	객석수	면 적	객석수
1,570㎡	1,484석	380㎡	472석	112㎡	650석

· 전시장

실 내 전 시 장				야외전시장 (예술의 숲)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제3전시장	제4전시장	
432㎡	270㎡	252㎡	280㎡	517㎡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대관기간 : 2012. 7. 1 ~ 12. 31 (6개월간)

※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 예술단 공연 및 대·소공연장 점검일은 대관 불가, 제1전시장은 7일 대관 6일 전시를 원칙으로 함

접수기간 : 2012. 3. 19(월) 09:00 ~ 3. 23(금) 18:00 (5일간)

접수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과 ※ 2012. 3. 19일은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3.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1부, 공연·전시계획서 1부, 공연·전시자의 경력서 1부, 출연자 및 진행요원 명단 1부, 대관준수사항 이행각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전시작품 목록(전시인 경우), 공연·전시 프로그램(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 가능)

※ 신청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이용안내/대관안내/대관신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공연 : ☎(052)226-8232, 전시 : ☎(052)226-8253】

●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공연감상평 이벤트

※ 공연관람 후 공연감사평을 인증샷과 함께 올려주세요~

베스트 인증샷 5분, 우수공연감상평 5분을 선정하여 5월 26일(토) 너버블퍼먼스 비밥공연 5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쿠폰 1매당 2장까지 50%할인 가능

· 공연기간 이후에는 소멸되며 현금이나 포인트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울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Museum Saturday Concert』

일시 : 2011. 3. 17(토) 오후 2시 장소 : 울산박물관 2층 강당 입장료 : 무료

프로그램 : Spring Concert 설레임 / 앙상블 콘서트

문의 : 052) 226-8278

* 본 공연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설무대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연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오페라 “어린이 마술피리”

일시 : 3.2(금) 20: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최 : 울산현대오페라단
문의처 : 294-3818

■ 공연개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원곡으로 어린이들로 구성된 현대 어린이오페라단이 공연

■ 프로그램

- 서곡
- 타미노왕자, 요정들의 중창
- 파파게노 아리아
- 천사들의 중창
- 밤의여왕 아리아
- 파파게노, 파파게나 이중창
- 합창



이수현 춘향가 완창 발표회

일시 : 3.3(토) 13: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영남판소리보존회
문의처 : 267-6342

■ 공연개요

고(故)만정 김소희 명창의 춘향가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8호 이명희님으로부터 사사 만정 김소희 명창의 뜻을 기리고자 발표회를 가짐

■ 프로그램

- 산조합주
- 춘향가 초입
- 다도시연
- 춘향가 신관사또 수작대목
- 남도민요



제10기 Good News Corps Festival

일시 : 3.4(일) 19:3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원
주최 : (사)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국
문의처 : 276-7080

■ 공연개요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특별한 경험과 단원들이 체험한 진실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댄스와 편지, 체험담, 트루스토리 등으로 표현

■ 프로그램

- 식전행사 : 라이쳐스 스타즈 및 리오몬따나 공연
- 1부 : 세계 문화 공연
- 2부 : 세계 문화 공연 및 트루스토리



제1회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 3.4(일) 19: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세이바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의처 : 211-7101

■ 공연개요

평소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예술적 재능을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 기량을 평가받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을 선곡해 연주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나아가 클래식 음악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

■ 프로그램

- 라데츠키 행진곡, 헝가리 무곡
-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협연
- 리베르 탱고
- 꼰떼 빠르티노 성악협연
- 캐러비안 해적



가족뮤지컬 “피터팬”

일시 : 3.10(토) 11:00 14:00 16:00
3.11(일) 13:00 15: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원
주최 : 플러스기획
문의처 : 031-294-4232



■ 공연개요

각박해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컴퓨터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날로 낙약해져만 가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동화 “피터팬”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자아실현,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창의력 발달에 기여

■ 프로그램

런던의 한 작은 마을, 피터팬을 사랑하는 웬디, 존, 마이클 남매가 산다. 어느날 피터팬이 찾아와 웬디, 존, 마이클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로 안내하고 나쁜 해적 후크선장과 결투 등 신나는 모험을 즐긴다.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일시 : 3.13(화) 19:3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 남구 구립교향악단
문의처 : 226-5413

■ 공연개요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서곡
- 솔리스트 협연
- 오케스트라 협연
- 바리톤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2012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

일시 : 3.16(금) 15:00, 19:0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문의처 : 259-1203~4

■ 공연개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의 기획연주로 음악대학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

■ 프로그램

- Hungarian Dances No.1, No.5, No.6
- Invitation to the Dance Op.65
- Hungarian Rhapsody No.2
- Light Cavalry Overture
- 가고파 외 5곡



제3회 울산아카데미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 3.17(토)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아카데미 플루트 오케스트라
문의처 : 260-7268

■ 공연개요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교사들의 플루트 오케스트라 연주

■ 프로그램

- FLIDHT OF THE BUMBLEBEE
- "Nabucco" Overture on the Opera
- Mozart Piano Concerto No.21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 Somewhere out there
- Tangos&More Six DANCES Csardas
- Libertango



제10회 울산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 3.18(일)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 챔버 오케스트라
문의처 : 243-6797

■ 공연개요

울산지역의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연주회를 개최

■ 프로그램

- Overture "Egmont" Op.84
- Concerto for Cello in g minor RV 531
-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제32회 울산 아가페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시 : 3.20(화)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최 : 울산 아가페합창단
문의처 : 259-2280

■ 공연개요

합창, 중창, 독창,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 프로그램

- Blessed are the men who fear him
- Thanks be to God, He that shall endure to the end
- 주기도, 마룻데, 생명의 양식
- Nella Fantasia, 세계민요 메들리
- 배토벤 곡
- 원해, 하나님의 은혜 등
-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외 5곡



송승환의 뮤지컬 "피노키오"

일시 : 3.24(토), 3.25(일) 14:00 16:00
장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40,000원, S 30,000원
주최 : 오름기획
문의처 : 031-258-9053

■ 공연개요

명작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판타스틱하고 신비함 모험의 세계로 그려내어 어린이들에게 모험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나무 인형을 만드는 '제퍼트 할아버지'
-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나무 인형을 만들고는 '피노키오'라 이름을 지어준다. 제퍼트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파란머리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마법을 걸어 생명을 주고, 착한 친구 귀뚜라미도 보내주어 신나는 모험을 하게 만든다..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일시 : 3.30(금) 19:3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원
주최 : 아르모니아
문의처 : 272-1014

■ 공연개요

친숙한 곡들을 세계 각국의 리듬으로 편곡하여 보다 친근하게 월드뮤직을 고새하고, 더불어 국악, 시노래, 시낭송을 공연

■ 프로그램

- 검은눈동자(러시아), granada(스페인), Manha de Caenaval(남미), I1 Bacio(이탈리아), E1 Condor Pasa(남미)
- 고품의상, 한시, 시조(시낭송)
- 상젤리제(프랑스)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일시 : 3.31(토) 12:00 14:00 16:00
장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30,000원
주최 : 대추
문의처 : 010-3584-6396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고양이를 캐릭터로 하여 노래와 안무, 연기를 함께한 뮤지컬로 제작

■ 프로그램

- 평화와 사랑 그리고 배고픔이 없는 행복의 도시 '캣츠타운'으로 가기 위해 고양이들이 모여든다. 단 한명의 고양이만이 캣츠타운으로 갈 수 있는 목걸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자랑으로 가장 우수한 고양이를 뽑게 되고 모든 고양이가 친구가 되어 정정 당당하게 승부를 위해 노력한다.
- 주인공 '타카'는 혼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가 악당 고양이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데.

EXHIBITION



열린공간 상설기획 『예술의 숲 야외조각 상설전』

기간 : 12. 14(수)~2012. 3. 22(목)
100일간
장소 : 야외전시장
주최 : 울산문화예술회관

■ 전시내용

울산문화예술회관 상설야외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적인 휴식 공간 제공하고 지역조각가 2인의 야외조각작품 14점 전시



제2회 운산 백부일 서각전

기간 : 3. 7(수)~3. 13(월), 7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백부일

■ 전시내용

작가가 평상시 생각하는 느낌들을 마음속에 담아 다양한 나무에 표현하는 서각작품 40점 전시



제1회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전

기간 : 3. 10(토)~3. 11(일), 2일간
장소 : 제2,3전시장
주최 :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

■ 전시내용

한국난문화협회 울산협회 승격 창립기념을 위한 제1회 연합전 형식의 전시로서, 한국춘란 화예품 및 엽예품, 일본춘란, 중국춘란, 석곡, 풍란 등 야생란, 동양란 전반의 작품 350~400여점 전시



제11회 울산 미사랑 작가회전

기간 : 3. 15(목)~3. 20(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 미사랑 작가회

■ 전시내용

작가 개인들의 일정공간을 활용 작가 회원들의 개성과 인물, 풍경 등 지역적 특성을 담은

미술 구성 작품으로서 서로 다른 성격의 그림을 한눈에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로서 작품 70여점 전시



울산 · 부산 · 포항 연합 사진 교류전

기간 : 3. 15(목)~3. 20(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뉴비전 아트센터

■ 전시내용

작가 개인들의 일정공간을 활용 작가 회원들의 개성과 인물, 풍경 등 지역적 특성을 담은 작품 100점 전시



제2회 이종민 갑골문 서예전

기간 : 3. 15(목)~3. 20(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이종민

■ 전시내용

사천년 전 인류 최초 문자인 갑골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예작품 30여점 전시



제5회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3. 22(목)~3. 27(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매일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들의 다섯번째 정기 회원전으로 산업수도 울산 발전의 모태가 된 북구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비경을 1년여간 촬영한 사진작품 100여점 전시



제15회 드로잉 드로잉 회원전

기간 : 3. 22(목)~3. 27(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드로잉드로잉회

■ 전시내용

다양한 선 작업으로 표현하는 드로잉을 현대적 감각에 입각하여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회원 17명의 자유로운 선 작업을 통한 드로잉 작품 40여점 전시



제2회 울산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3. 22(목)~3. 27(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울산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울산사진학원 취미반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로 동호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회원들의 다양하고 특색적인 삶에 대한 느낌을 앵글에 담은 사진작품 30점 전시



제22회 현대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3. 22(목)~3. 27(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현대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현대사진동호회의 제22회 정기회원전으로, 풍경, 접사, 생활상, 생태사진 등 다양한 소재의 창작품과 국내·외 회귀사진 등 회원들의 창작활동작품 60점 전시



우보 배성근 서예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배성근

■ 전시내용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새로운 서예의 미적 탐구 서예작품 및 붓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개인의 창작 서예작품 40점 전시



제2회 3인의 꽃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꽃 그림회

■ 전시내용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에 꽃이 피는 자연의 이치를 3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꽃 그림 25점 전시



제12회 강문철 작품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강문철

■ 전시내용

녹색의 대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목(巨木)'과 '거대한 뿌리'의 힘찬 생명력을 표출하는 나무의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서양화 작품 40점 전시



제1회 굿 포토클럽 회원전

기간 : 3. 29(목)~4. 3(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굿 포토클럽

■ 전시내용

굿 포토클럽은 울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사진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길'이라는 테마로 진취적이고 이색적인 회원들의 창작 사진 작품 60점 전시



『초청기획 전시』즐거운 야외 조각전

기간 : 3. 30(금)~5. 30(수), 62일간

장소 : 야외전시장

주최 : 울산문화예술회관

■ 전시내용

예술의 숲 열린 야외공간의 친근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석조, 철조, 브론즈 등 친근한 야외조각품 30점 전시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문예회원 모집

화려한 선물!

아름다운 무대!

감동이 있는 객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s스타일 완성!

◎문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풍성한 혜택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미만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화 : 052)226-8274
- 방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회비납부 :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발행 문예정보지 “울산문예” 1년간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시 30% 할인
- 대관공연 시 주최측과 협의 최대한 할인제공(10~30%)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입장료 5%, 회원가입비 10%)
-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회관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공연내용 이메일링 및 SMS로 공연 정보 제공

※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성악 어렵지 않아요~

◎울산문화예술회관 2012 상반기 『아트클래스』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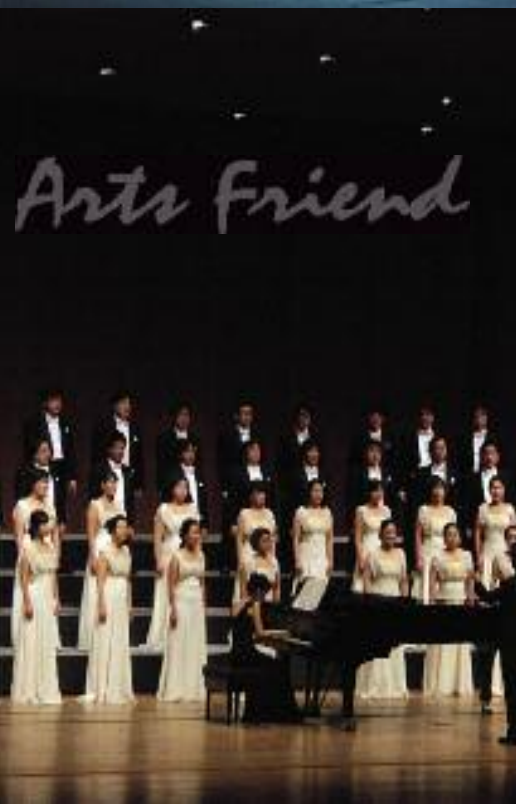
접수기간 : 2012. 3. 12 ~ 3. 21(10일간)

접수방법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or.kr>)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강의기간 : 2012. 4월 ~ 6월(주 1회, 12주간)

과 정 명	항 목	내 용	비 고
지휘마스터 클래스	교육시간	초급 - 매주 화요일 19:30 중급 - 매주 목요일 19:30	* 회관회원은 수강료 30% 할인
	모집인원	초급 10명 / 중급 10명	
	수 강 료	30만원	
성악마스터 클래스	교육시간	클래스 I - 매주 월요일 19:30 클래스 II - 매주 수요일 19:30	
	모집인원	클래스 I 15명 / 클래스 II 15명	
	수 강 료	10만원	
전통 클래스	교육시간	신청기관과 협의 후 결정	
	수 강 료	무료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 Center

